비교문화연구 제19집 2호, (2013) pp. 127~165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주요개념〉 박물관, 에스닉 푸드(ethnic food), 짜장면, 공화춘, 차이나타운, 화교, 민족주의, 관광산업

박물관을 통한 에스닉 푸드(ethnic food)의 새로운 해석과 구성:

인천 짜장면박물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창호**

1. 서론

과거 개항장이자 외국인의 거주와 사교를 위한 조계지와 공원이 조성되었던 인천 옛 제물포는 최근 이 일대가 '한국 근대문화의 발상지'로서 특별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록 제물포는 두 번째로 개항된 곳이지만 근대문물의 '최초'라는 역사성을 부여받은 유산들이 특히 건조물의 형태로 다수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천시와 중구청은 2010년에 이곳이 개항장 문화지구로 지정받은 것을 계기로 '근대문화의 발상지'로서 널리 인지되도록 장소마케팅을 추진하고 관광자원으로 폭넓게 활용할 예정이다(인천광역시 중구 2011a: 5-6).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28-B00049).
**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비정규 교수

인천시와 중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장소마케팅이 결실을 거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차이나타운의 옛 공화춘(共和春) 자리에 세워진 '짜장면박물관'을 들 수 있다. 공화춘은 중국 산둥(山東)지역에서 이주한 중국인들이 20세기 초에 건립하고 경영하다가 1980년대 초에 폐업한 한 음식점이다. 그러나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인천의 차이나타운이 관광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공화춘이 짜장면의 발상지라는 담론이 유포되기 시작했고, 입증할 만한 사료가 부족한 채 공화춘은 짜장면을 처음 만든 원조 식당이 되었다. 해당 구청에서는 2006년 4월 14일 공화춘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했고, 2008년 짜장면박물관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에는 부지매입과 등기이전을 완료했으며 공화춘의 복원작업을 거쳐 2012년에 마침내 지방정부가 원했던 방향대로 짜장면박물관을 완공했다.

2012년 4월 28일, 인천 차이나타운 공화춘에서는 짜장면박물관 개막식이 열렸다. 인천시장과 구청장,[1] 지역 국회의원, 시 · 구의회의장 등이 연단에 나오고 테이프 컷팅을 하는 동안 이 지역 주민인 화교 대다수는 연단 밖에 서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러한 풍경은 이주민 집단거주지에서 지역의 이주민 공동체가 배제된 채 진행되는 이주민 유물의 복원 및 전시 그리고 관광자원화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천이라는 개항장 도시의 양면성이 어떻게 형성되어왔으며, 오늘날 이 개항장이 문화관광도시로의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국가 및 지방정부가 새로운 해석을 통해 어떻게 의미의 변화를 시도하는지, 이로 인해 개항장의 경관은 어떠한 형태로 변형되는지를 인천 차이나타운의 사례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또한 오늘날 차이나타운, 짜장면박물관과 같은 경관을 제공한 주변의 환경뿐만 아니라 내부적 맥락과

1) 당시 구청장이 공석이어서 부구청장이 권한대행으로 참석하였다.

경합의 과정, 그리고 실제 소비자인 관광객의 요구와 맞물려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민족지적 사례와 함께 자세히 기술하고, 이주민의 문화를 기초로 만들어진 박물관과 같은 관광자원이 앞으로의 시대에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를 논하고자 한다.

2. 문제의 제기

본 논문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공화춘이라는 근대 유물을 복원하여 짜장면박물관으로 새롭게 해석하여 구성한 것이 과연 어떠한 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는가'이다. 즉 이러한 사례 속에는 유물의 복원이란 무엇이며, 이것을 재해석하여 구성한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오늘날 차이나타운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을 근원적으로 보자면 근대사회의 모든 측면들은 이른바 '만들어진 전통'(invention of tradition)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만들어진 전통'은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통상 공인된 규칙에 의해 지배될 뿐만 아니라 특정한 의례나 상징적 성격을 갖는 일련의 관행들을 뜻하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그것들은 특정한 가치와 행위규준을 반복적으로 주입함으로써 자동적으로 과거와의 연속성을 내포한다(Hobsbawm 1992(1983): 1).

이것은 곧바로 전통을 발명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그동안 고고학적 유물이 활용되는 여러 사례를 분석해보자면 '박물관'이 민족과 민족주의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알 수 있다. 고고학적 데이터들은 민족주의적 목적을 위해 조작되기도 하며 특히 20세기 유럽의 민족국가 만들기에 동원되기도 했다(Kohl 1998: 223). 요컨대 박물관은 고급문화가 근대 국민국가의 새로운 통치기술 또는 사회경영 수단으로 편입되어 보편적인 사회규범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게 되는 과정, 즉 문화가 매우 '유용한 통치기술'로서 새로운 권력형식으로 조직되어 가는 과정에서 태동한 것이다(Bennett 1995: 18-19; 박소현 2011: 219-220). 고고학과 박물관을 근대사회의 형성과 지속에 관련하여 다룬 많은 연구들에서는 이상과 같이 고고학과 박물관이 민족주의 형성에 기여하는 측면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오늘날 민족국가들 내에서 행해지는 박물관 건축사업의 모든 것이 민족주의적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인천 차이나타운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가나 지방정부가 박물관을 통해 이주민 소수자 집단까지 민족주의적으로 흡수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대부분 요식업에 종사하는 화교 대다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도 하지만 이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자신들의 고통스러운 과거 대신에 자랑스러운 전통을 내세울 수 있으며 자신들의 문화를 대표해줄 수 있는 박물관으로의 변경이었으며 소수자로 살아왔던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끊임없이 이러한 내용을 국가나 지방정부에 요구한다. 즉 이들은 비록 이주민이자 소수자 집단이지만 나름대로 민족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이와 동일한 형태의 대안적 이념 체계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오늘날의 고고학적 자료와 박물관을 둘러싼 다양한 현상을 단순히 국가와 통치대상으로서의 국민으로 한정해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세계화의 급속한 확장으로 인한 인구 이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다양한 집단의 존재로 인해 박물관과 유물의 복원에 관한 새로운 시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오늘날은 전통이 발명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확실성의 탐구가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으며 집단의 과거 역시 점점 박물관과 전시회, 개별적인 소장(所藏)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는 의식적인 선택과 합법화 그리고 표상의 장이 되어버리며(Appadurai 2001(1996): 59) 문화의 해석 지점 역시 그 안에서 역동적으로 파악될 필요가 있다. 즉

고고학이 현대의 문화정체성과 복합적이고 광범위하게 교차되면, 대개는 본질적으로 공공연한 정치적 성향을 띠고 있지만(Jones 1997: 10) 이것이 지배권력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과거는 실제로 일어난 일 그대로 복원(re-constructed)될 수 없다. 그것은 오히려 어떤 이유이든 과거와 상호작용을 선택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지속적으로 구성(constructed)된다고 볼 수 있다(Stone & Planel 1999: 1-2).[2] 최근 응용고고학자들과 응용인류학자들이 유물 자체보다도 선주민 공동체와의 협력과정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며 이들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는지와 문화유산의 개발과 관련한 이들의 의사결정 참여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이와 같이 한 장소라 할지라도 여러 주민들의 다양한 역사에 대한 견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Shackel 2004: 2-3).

한편 이러한 집단 간의 관계에 구체적인 매개체로 등장한 것은 짜장면이라는 '음식'이었다. 기실 음식이라는 것은 정치-경제적 가치의 창출, 상징적인 가치의 창출, 그리고 사회적 기억의 구성과 같은 광범위한 사회적 과정들을 보여준다(Mintz & Du Bois 2002: 99). 즉 음식먹기라는 것은 이념과 권력과 계급, 그리고 세계관의 생산과 대립의 역동적 과정 속에 존재하며(김광억 1994: 9) 이를 상상하고 구성해내는 것 역시 그 역동성 속에 포함된다. 특히 이러한 음식문화를 박물관화 한다는 것은 건립의 주체에 따라 하나의 방향성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 방향성은 이주민 집단의 존중과 다문화주의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오히려 민족주의의 강화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혹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다문화주의로 가장한 민족주의'의 형태도 가능하다. 이것은 주류를 이루는 권력집단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대항적인 집단의 반응 혹은 대안 제시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에 따라 달려 있기도 하다.

2)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고고학적 복원은 진보주의자들의 압력에 저항하는 구실을 한 일종의 보수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볼 수도 있다(Anderson 1991: 181).

이상과 같이 짜장면 박물관을 둘러싼 해석과 구성 그리고 이에 대한 논쟁과 갈등은 다양한 종족집단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국제이주 및 종족적 다양성의 증가 속에서 상호간의 존재를 어떠한 방식과 정도로 파악하고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관계 설정의 정치라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담론의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장에 근거한 민족지적 사례를 통해서 파악될 수 있다.

3. 차이나타운의 변천과정과 짜장면의 '발명'

1) 공화춘과 차이나타운의 형성과정

한국과 중국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조공을 통한 관(官)무역과 사(私)무역으로 서로 왕래해왔지만 중국인이 본격적으로 한국사회에 머물며 살게 된 것은 19세기 말에 이르러서이다. 임오군란(1882년) 이후 대원군과 민비 사이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원병 요청으로 한국에 온 청나라 군사 4천여 명과 40여 명의 교역 상인이 한국 화교사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박은경 2002: 275). 화교의 대한이민은 1883년 개항 후 본격화된다. 그들의 이민은 조선과 중국 간의 '조중상민수륙무역장정'(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의 체결(1882)에 따라 본격화하였으나 당시의 사회 여건으로 보아 법적 신변보장은 기대하기 어려웠다(최영준 1974: 47). 일본이 조선과 1883년 인천구일본조계약서(仁川口日本租界約書)를 정식으로 조인하고 인천에 일본전관거류지(日本專管居留地)[3]를 설치하자 심한 경쟁관계에 있었던 청국(淸國)도 전관조계(專管租界) 설치를 서둘렀으며 1884년에 인천구화상지계장정(仁川口華商地界章程)에 의해 지금의 인천 선린동 일대에 약 5,000여 평 규모의 청국전관

3) 거류지(居留地)는 조계(租界)의 대역어로 일본에서 일관되게 사용했고, 중국 및 영·미 등 서구각국은 조계(租界)라는 용어로 사용했다(손정목 1982: 70-71).

조계(淸國專管租界)가 설정되었다(손정목 1982: 135-149).

이로부터 속칭 '청관'(淸館)이라 부르는 중국인 거리가 발생하였다. 청국의 상인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엄격하게 이루어졌던 관무역(官貿易)에서 벗어나 조계지에서 자유롭게 거주하며 상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곳에는 청국 산둥(山東) 지역에서 살던 중국인들이 주로 이주해서 살았다(인천광역시 2002). 이 청국조계에는 동순태(同順泰), 인합동(仁合東) 등 청국 거상들의 커다란 점포와 여관, 잡화상, 주택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고, 특히 공화춘, 중화루, 동흥루 등 전국적으로 유명한 청요리집들이 있어 서울에서까지 이곳의 음식을 먹으러 내려오곤 했다. 이들의 상권은 한때 무척 번성했고, 늘어나는 중국인 인구를 감당하지 못해 지금의 동인천역 근처까지 조계를 확장하기도 할 정도였다(인천광역시 2002; 1998: 30-35).

중국인 거리가 유명하게 된 것은 청요리집인 중화루(中華樓)와 공화춘(共和春)의 명성에 기댄 바가 크다. 특히 전국의 남녀노소가 즐겨 먹는 짜장면이 개발된 곳도 바로 이 중국인 거리에서부터였다고 알려져 있다(인천광역시 2002). 이 거리에 국내 최초로 생겼던 청요리집은 1908년경에 건립된 '산둥회관'(山東會館)이라고 알려져 있다.[4] 개점 이후 이 산둥회관은 1912년에 중국의 국부 쑨원(孫文)이 청조를 전복시키고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민주공화국인 중화민국을 세웠기 때문에 산둥회관을 세운 위시광과 지인들이 국가의 경사스러운 일을 경축하기 위하여 '공화국의 봄이 왔다'(共和國的春天到了)라는 의미의 공화춘(共和春)이란 상호를 내 걸고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다(한동수 2009: 373).[5]

---

4) 이 산둥회관은 청국에서 이주한 상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객잔(客棧)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한동수 2009: 373).

5) 중국 산둥성(山東省) 무핑현(牟平縣) 요우팡촌(油坊村)에서 인천으로 이주한 위시광(于希光) 씨에 의해 개업한 '공화춘'(共和春)은 화교무역이 번성하던 1920년대에 최고의 번성기를 누렸으며 1948년 주인인 위시광 씨가 타계하자 아들인 위홍장(于鴻章) 씨가 가업을 이어받았다. 이후 공화춘은 인천의 대표적인 중화요리집으로 계속 명성을 유지해 나갔으며, 2대 주인인 위홍장 씨는 인천화교협회의 회장과 화교학교

그러나 증가하던 인천 화교는 한일합방 이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청국 조계지는 1913년 11월 22일 조선총독부와 중화민국이 맺은 '재조선중화민국거류지폐지(在朝鮮中華民國居留地廢止)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 정식으로 폐지되었다. 이후 1920년대 들어서면서야 인천은 다시 화교 수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인천의 상권 위축에 따른 화교인구의 감소요인으로 여전히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화교 수가 증가한 것은 중국대륙의 혼란으로 해외이주 화교 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인천은 중국인 노동자의 입항지로 1924년 29,000명, 1925년 24,801명, 1926년 28,738명, 1927년 59,714명이 인천항을 통해 들어와 전국 각지로 이동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봄에 입항하여 가을에 귀국하는 '쿨리'(苦力)[6]였다(박현옥・박정동 2003: 27-28).[7]

그런데 해방 이후인 1948년에 남한 정부가 수립되고 1949년 공산화된 중국대륙과 국교가 단절되면서 중국인의 한국 이주가 중단되었고 이때부터 화교사회는 순전히 인구의 자연 증가에 의존하여 커 갈 수 밖에 없었다(장수현 2002: 247). 한국전쟁 이후에는 한국 경제의 발전과정에서 화교들을 배척하는 정책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차츰 화교들이 무역상의 난점을 타개하기 어려워지자 많은 수가 요식업으로 전환했고 중국음식점이 한때 호황을 맞기도 했다. 그러나 1961년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제한한 '외국인토지법' 및 음식점에 대한 중과세 부과 등으로 화교들의 경제가 다시 침체되기 시작하면서(이효재・박은경 1981: 228-

의 이사장을 맡을 만큼 인천 화교사회에서 지위가 높았다. 위홍장 씨가 일선에서 물러난 1979년에 둘째 아들인 위신밍(于心明) 씨가 가업을 이어(다른 곳에서는 장남 위신첸(于心辰)가 가업을 이었다고도 말하는데 이 설이 더 설득력이 높다) 한국 화교사회의 모범적인 가문으로 꼽히기도 했다. 그러나 경영악화로 인해 공화춘은 1984년에 폐업한다(秦裕光 1979. 10. 25; 居善堂文化會月刊 2006. 9. 5. 참조). 공화춘 설립자인 위시광의 자녀들에 대한 자료는 한동수(2009)의 논문에 자세히 실려 있다.

6) 쿨리(苦力) 혹은 꾸리란 한마디로 고용(雇用)이란 뜻인데, 아시아 미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유럽인들의 총칭이다. 한국의 화교사회도 한마디로 이들 쿨리를 기초로 형성되었다(李玉蓮 2005: 121-122; 이덕훈 2002: 54).

7) 짜장면박물관 전시 내용에서 쿨리들의 존재는 중요하다. 이 쿨리들이 공화춘에서 만든 짜장면을 먹기 시작했다는 것이 현재 짜장면박물관의 주요 콘셉트이기 때문이다.

229) 상당수의 화교들이 다시 대만, 중남미, 미국 등으로 이민을 떠나기도 했다(이창호 2012: 161-165).

그러나 1992년 한중수교가 이루어지고 1997년 한국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경제적 자원으로서의 화교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의 외국인 정책을 재검토하려는 시도와 맞물리면서 화교들에게 억압적이었던 각종 법률과 제도들이 완화되기 시작했다(장수현 2001: 1-2). 화교들은 한국에서 이른바 '재도약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양필승・이정희 2004: 95). 1998년부터 인천시 북성동, 선린동 일대의 차이나타운에는 화교들이 다시 돌아와 중국음식점을 속속 개업하기 시작했으며[8] 2000년대부터는 국가 및 지방정부의 차이나타운 개발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2) 짜장면 원조설의 '발명'과 유포

학계에서는 공화춘의 짜장면 원조설이 증언자나 문헌기록조차 없어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지만 산둥사람들이 즐겨 먹었던 자지앙미옌(炸醬麵)이 19세기 말 이후 산둥인이 대다수를 차지했던 쿨리들과 함께 유입되기 시작했다는 것에 있어서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한다. 즉 19세기 말 조선과 청국의 여러 정치적・사회적 상황을 감안해볼 때 1882년 인천항 개항 후 조선으로 대거 건너오기 시작한 산둥지방 화상・화공들에 의해서 한국의 짜장면이 유래되었다는 사실은 충분한 설득력을 갖는다(김만태 2009: 162-165).

그렇다면 공화춘의 짜장면 원조설 그 자체는 언제부터 만들어지고 대량으로 유포된 것일까? 공화춘 원조설이 처음 유포되기 시작한 시점

8) 2011년 기준으로 북성동, 선린동의 총인구는 4,856명이며 이 중 외국인수는 690명에 달한다(인천광역시 중구 2011c; 인천광역시 중구 기획감사실 2012). 외국인 중 화교의 수는 통계가 없는데 약 514명~600명 정도(110가구~120가구)로 추정된다.

은 명확하지 않지만 연구자는 1998년 이후에 붐을 이루기 시작한 차이나타운 내의 중식당 개업과 이후 지방정부의 차이나타운 개발과정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차이나타운 개발과정에서 나타난 공화춘 원조설의 유포 및 대량 확산의 근거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8년에 북성동에 크게 중식당을 개업한 화교인 S씨가 '향토짜장면'을 개발하여 그해 열린 인천시 요리경연대회에 인천 향토음식으로 출품하여 장려상을 받았으며 인천시로부터 향토음식으로 지정받고 자신의 음식점에서 판매를 시작하였다. 이와 동시에 S씨는 자신이 과거 청관거리의 대표적인 요리점이었던 중화루, 공화춘에서 일했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자손이라는 것을 홍보하기 시작했다. 특히 S씨는 1999년에 TV방송의 인기프로그램이었던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 중 한 코너인 '신동엽의 신장개업'에 출연하였는데(김현철 1999: 92-97) 이때부터 그는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IMF 외환위기 이후 파산하거나 생계가 어려운 서민들의 사업 재기를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S씨가 신장개업할 사람을 강하게 훈련시키는 '호랑이 주방장'으로 등장해 주목을 받았다(이창호 2007: 232).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은 짜장면의 원조지라는 홍보효과와 함께 인천 차이나타운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당시 지방정부에서는 차이나타운의 활성화를 위해 2002년부터 연례적으로 열린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를 지원하고 홍보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행사에서 짜장면 시식 이벤트는 중요한 프로그램 중 하나였다. 이후 일반인의 이미지 속에 인천 차이나타운은 짜장면의 발상지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었다.

둘째, 2004년 '공화춘'이란 상호의 상표등록과 함께 동명의 음식점이 차이나타운 내에 개업을 했으며 전국적으로 동명으로 된 인스턴트 제품의 판매가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공화춘의 상표등록은 2002년에 이

루어졌는데 국내 굴지의 식품회사인 C사와 현재 차이나타운에서 공화춘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L씨가 출원자로 되어 있다. L씨가 공화춘의 상표명을 등록하게 된 것은 우연한 계기였다. L씨는 원래 서울에서 호텔업에 종사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인천 월미도의 한 카페를 인수하게 되었는데 마침 운영이 잘되어 성업을 이루었다. 그는 카페를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카페명을 인터넷에 도메인명으로 등록하기로 결심했으나 자신의 카페명을 미리 선점한 사람이 있어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는 너무 화가 나서 차이나타운 내의 중식당에 가서 중국요리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우연히 그 식당에서 아래쪽에 위치한 공화춘 골목을 바라보게 되었다. 1984년에 폐업하여 이미 폐허가 되긴 했지만 공화춘이 브랜드로서는 매우 값어치가 있겠다고 생각한 L씨는 상당한 준비기간을 거쳐 2001년에 상표출원을 하려고 특허청에 간다. 그런데 상표를 등록하러 온 사람은 L씨뿐만이 아니었다. 국내 대기업인 C회사에서도 역시 상표등록을 하기 위해 동시에 특허청에 온 것이다. 결국 L씨는 C사와 협의하여 C사는 물류, 제조, 유통 부분을 맡고 L씨는 프랜차이즈 외식업 유통 관련으로 분리하여 2002년에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게 된다. 이후 L씨는 은행대출 등을 통해 어렵게 자금을 마련하여 2004년에 차이나타운 내에 '공화춘' 브랜드로 중식당 본점을 오픈한다. C사 역시 공화춘 상표를 이용하여 인스턴트 제품을 개발하지만 실패하여 유통회사인 G사에게 상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현재 G사가 공화춘을 상표로 하여 인스턴트 짜장면, 짬뽕 등을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L씨와 G사의 공통적인 전략은 공화춘이 짜장면의 발상지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으며 이것은 2004년에 공화춘 건물을 문화재로 지정한 인천시의 차이나타운 활성화 전략과 맞아떨어지게 된다. 인천시에서는 당시 공화춘의 추정 설립연대인 1905년을 기준으로 하여 2005년을 '짜장면 100년의 해'로 선포했으며 각종 매스컴에서는 공화춘을 짜장면의 원조로 공식 보도하기 시작한다.[9)]

L씨와 같이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화교들이 모여 살고 있는 차이나타운에 중식당을 개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공화춘 설립자의 후손들은 자신들 조부가 운영한 음식점 명의을 도용했다며 소송을 걸기도 했고 차이나타운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화교들은 L씨가 운영하는 식당이 원조가 아니라고 인터넷 등에 소문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L씨는 자신이 아니었다면 오히려 공화춘의 명맥이 유지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공화춘의 설립자 자손들은 공화춘을 다시 중식당으로 운영할 계획이 없었으며 오히려 지방정부에 공화춘 건물을 매각했다는 것이다. 만일 화교사회에서 공화춘이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지방정부가 아니라 화교들이 십시일반 자금을 걷어 매입한 후 자신들이 진정 원하는 박물관으로 개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화교사회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면 오히려 자신이 더 현실적으로 공화춘의 명맥을 잇게 해 준 장본인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고 되묻는다.[10]

> 저는 2004년이나 지금이나 텔레비전이나 어디 매스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공화춘이) 과거에 문 닫았던 거고 나는 한국사람이다. (공화춘이) 대가 끊긴 걸 내가 재개를 시켜가지고 내가 이어가고 있는 거다. 내가 자체적으로 공화춘의 명예를 살리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한국사람이다. 나는 떳떳하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중국인 냄새풍기는 것 절대 안해요. 여기 국경일날요, 태극기 달은 집이 나 하나 밖에 없어요(L씨, 1956년생, 공화춘 프랜차이즈 대표).

이상과 같이 공화춘 짜장면 원조설은 차이나타운의 개발과정에서 음식점을 개업한 화교 및 한국인 주민들에 의해 유포되었으며 대기업과 매스컴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지방정부의 차이나타운 개발에 그대로 수용이 되어 이제 공화춘의 짜장면 원조설은 '진실'과

9) 이 내용은 L씨와의 인터뷰 및 공화춘 홈페이지(http://www.gonghwachun.co.kr/)를 참조한 것이다.

10) L씨의 논지는 이 논문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지방정부의 공화춘의 짜장면박물관화에 대한 논지와 유사하다.

다름없게 되었다.

4. 짜장면박물관의 건립과정과 그 의미

1) 개항장 인천의 두 가지 이미지와 개발

인천이라는 도시의 양면적인 성격을 지역사가들의 입을 빌어 잘 표현한 것으로 지역방송인 경인방송이 2004년에 제작한 '제물포의 유산'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들 수 있다. 이 다큐멘터리의 첫머리에서는 인천지역에 대해 "나라가 나가야 할 미래였으며 동시에 부끄러움과 치욕의 현장이었다. 그렇게 제물포는 두 가지 얼굴을 지니고 있었다."고 말한다. 부끄러움과 치욕의 현장이란 19세기 말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의해 강제 개항한 개항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국 어느 도시보다 가장 먼저 서양 개항문물을 받아들인 선구적 도시"라는 점도 같이 부각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인 '자유공원', 개항 이후 각국의 외교인과 상공인의 사교장인 '제물포 구락부'(현 중구문화원), 신문에 최초로 광고를 게재했던 독일인이 세운 세창양행의 바늘, 미국 타운센트양행의 석유가 조선에 전해졌다. 1884년 4월 5일은 인천에 언더우드 목사와 아펜젤러 목사 부부가 입국함으로써 개신교가 시작되었다. 초기의 종교는 선교보다는 의료와 교육에 더 열을 쏟았다고 강조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1891년 최초의 서구식 병원인 성누가병원이 개원을 해서 약대인이라 불린 랜디스 박사가 밤낮으로 환자를 돌봤고, 1895년에 설립된 답동성당은 하루 세 번 종을 울림으로써 인천 사람들의 나라 잃은 시름을 달래주었다. 다큐멘터리는 그 시절의 종교가 가난한 사람들의 삶과 함께 했다는 것을 감동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선교사들은 초기 선교방법으로 병원설립과 함께 근대식 학교교육에 힘

을 쏟았다. 특히 여성교육에 힘을 쏟았던 여선교사들의 모습도 소개된다. “사람을 키우는 일,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된 근대교육은 우리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었다”고 술회한다.

이 다큐멘터리는 중앙의 방송국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루기 힘든 지역사를 수많은 자료와 함께 지역의 소장학자들을 대거 출연시켜 당시를 재현하는 공을 들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만큼 지역의 엘리트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며 관념화시키는지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 근대에 있어 중국과 일본 그리고 서구는 똑같은 침략논리를 가진 외세였지만 서구는 새로운 문물과 함께 종교를 통한 사회봉사 활동으로 일종의 면죄부를 받는다. 반면 중국과 관련해서는 거상들이 드나들던 화려한 도시에서 쿨리들이 거주하는 가난한 중국인거리가 되었다는 어두운 감상으로 돌아선다.

> …청국의 거상들이 몰려와 상거래가 활발했던 거리는 청일전쟁 직후 쇠락하기 시작했다. 몇 몇 요리집과 잡화상…살림이 어려웠던 일부 중국인들은 부두 노동자들이 되기도 했다. ‘쿨리’(苦力)라고 부르는 중국의 저임금 국제 노동자들도 일거리를 찾아 수천 명씩 몰려왔다. 옛 화려했던 청관은 가난한 중국인들의 거리가 됐다. (중략) 중국인 노동자들이 모여 살면서 명물이 등장했는데 ‘공화춘’이다. 공화춘은 1920년대 번성했던 청요리집으로 노동자들을 상대로 싸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팔기 시작했다. 중국된장인 춘장을 볶아서 국수 위에 얹어내는 간단한 음식, 자장면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됐다(중략)(‘제물포의 유산’ 중 나레이션).

한국화교들은 지금 우리가 즐겨먹는 배추나 당근도 실은 자신들이 중국에서 처음 가져온 것이라고 말하곤 한다. 벼농사만 집중했을 뿐 채소를 어떻게 재배하는지 몰랐던 당시 한국의 농업에 자신들이 이바지한 바가 크다는 것이다. 농산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의 구두나 양복 같은 물건의 수입도 마찬가지로 당시 공산품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던 한국사회에 자신들이 어느 정도 기여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이창호 2007:

214-215). 그러나 한국인의 중국인에 대한 기억 속에는 오로지 가난한 쿨리들이 즐겨먹던 '짜장면'만이 이미지로 남아있다.

짜장면이 중국인에 대한 비하의 이미지라면 '청관'(淸館), '차이나타운'은 중국의 '침략'에 대한 이미지로 여전히 남아있다. 차이나타운이 관광지로 개발되기 시작한 2000년 초기까지 인천의 소장학자들은 구한말 청국에 빼앗겼던 땅인 '청관'을 서구인들이 과거 청국의 하급노동자들의 거주지에 대해 이국 취향의 시선으로 만든 명칭인 '차이나타운'으로 부를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인천의 선대들은 그곳(청국 조계지)을 예부터 '청관'(淸館)이라 불러왔는데, 조계지는 우리 포졸조차 함부로 드나들 수가 없었다. 명목상 청국은 지세(地稅)를 내긴 했지만 청국에 빼앗겼던 땅인 '청관'을 오늘 서양식 명칭인 '차이나타운'으로 부를 수 없는 일이다. (중략) 최근 일부 진보적 교수들은 "우리나라는 화교 자본이 성공하지 못한 세계 유일의 나라이며, '차이나타운'이 없는 나라여서 부끄럽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 그 의중을 헤아리기는 어렵지 않지만, 세상에 이런 역사맹(歷史盲)들이 또 있을까 싶다. 1천여 년을 두고두고 머리를 조아렸던 과거사는 고사하고, 100여 년 전 청국인들이 조선 팔도에서 온갖 횡포를 저질렀던 저간의 사정을 생각이나 하고 '부끄럽다' 말하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인천일보 2003. 1. 22).

이렇게 인천 차이나타운은 과거부터 지속되어온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상반된 이미지가 그대로 작동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면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인천 차이나타운은 정부의 개발과정을 거치면서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점차 국가 및 지방정부와 매스미디어에 의해 정치적으로 탈색된 관광지가 되고 있다. 증대하고 있는 중국과의 교류 및 관광자원 창출의 필요성 때문이다.

차이나타운뿐만 아니라 인천시 중구의 옛 개항장 일원은 2001년부터 추진되어온 월미관광특구 사업과 함께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 계획'(2003년), '자유공원주변 지구단위계획'(2007년), 개항장문화

지구 지정(2010년)[11]을 거치면서 근대 문물의 '최초', '한국 근대문화의 발상지'로 더욱 부각되고 있다. 지방정부는 장소마케팅과 행정력이 투입된다면 이 일대의 유산들이 인천이라는 지방유산(local heritage)에 머물지 않고 국가유산(national heritage)으로 도약할 수 있는 우수한 장소자원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인천광역시 중구 2011a: 5). 특히 짜장면박물관은 인천시와 중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장소자원의 활용이 결실을 거둔 가시적인 성과 중 하나이다. 지방정부는 사료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다소 무리하게 짜장면박물관 설립을 추진해왔는데 이것은 짜장면박물관이 그동안 지방정부가 추진해온 관광자원의 개발뿐만 아니라 과거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는 동시에 현대와 연계시키자는 사업의 목표와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항장 관련 사업 외에도 중구일대에는 국토해양부가 추진중인 2015년 이후 내항 1, 8부두 재개발구역 확장 사업이 있으며 제2국제여객터미널 이전 사업도 현재 지방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다. 이곳의 한국인 주민들은 개항장문화지구와 관련하여 2012년 1월에 개항장문화지구 주민협의체 준비모임을 구성한 상태이며 내항개발과 관련하여 사단법인 내항살리기 시민모임 등의 단체도 설립했다. 이들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개발의 방향이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다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민으로서 소수자이며 시민권이 제한적인 화교들의 경우에는 지역 내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가 무척 힘들다. 인천시 중구청은 점점 더 커지는 중구 내 개발계획을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관할지역인 차이나타운의 경우 세 개(인천차이나타운 연합회, 북성동 번영회, 차이나타운문화축제위원회)로 나뉘어져 있던 자치조직들을 하나로 통합하도록 권유하면서 각 단체장들의 양해

11) '문화지구'(cultural district)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정하는 공간 및 장소를 문화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하는 제도로서 현재 인천 개항장 일대는 인사동, 대학로, 헤이리 문화지구에 이어 2010년 2월 전국에 4번째로 '개항장 문화지구'가 지정되었다.

각서를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2011년 2월에 차이나타운 브랜드추진위원회(C.T.B)가 발족되었고 '인천 차이나타운 발전위원회'(이하 인차발)로 명칭을 바꾸어 모임을 운영 중이다. 이 조직은 외부에 화교와 한국인이 화합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임원들을 한국인과 화교로 안배해 놓았을 뿐이기 때문에 화교들이 실제로 지역 내의 개발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 짜장면박물관의 건립과정

앞서 논의했듯이 인천시 중구의 역사도시 개발사업에는 근대 역사를 간직한 차이나타운의 문화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구청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차이나타운 내에 있는 화교들의 건축물들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과거 차이나타운에서 유명했던 요리점으로는 중화루와 공화춘을 들 수 있는데 중화루는 철거되어 터만 남아 있었고 공화춘은 1984년 폐업한 이래 건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구청은 현재 건물형태가 남아 있는 '공화춘' 건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12] 2000년 초반 무렵 한국사회에서 중국문화와 외식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인천 차이나타운이 부각되기 시작했는데 차이나타운에서 화교들이 만드는 요리 중에 짜장면은 한국인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음식이었다. 또한 짜장면이 공화춘에서 처음 만들어졌다는 설이 널리 퍼져 있었고, 이를 근거로 구청에서는 차이나타운의 활성화 방안을 고심하던 가운데 일본 요꼬하마의 라면박물관을 벤치마킹하여 공화춘을 짜장면박물관으로 만들자는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했다. 더구나 공화춘을 짜장면박물관으로 만들기 위해 구청이 주도면밀하게 준비하는

12) 공화춘은 중구 선린동 38-1, 38-2번지에 위치해 있는 2층 중정형 중국식 회관 건축물로 1908년경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지면적은 581.8m^2(38-1번지 294.2m^2, 38-2번지 287.6m^2)에 이른다(문화재청 2007: 31).

좌측 사진은 박물관 리모델링 이전의 모습(2004. 5. 4)이고 우측 사진은 짜장면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한 직후의 모습(2012. 5. 1)이다.

〈사진 4-1〉 공화춘 전경

사이인 2006년 7월에는 문화관광부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100대 민족문화상징'을 선정했는데 이 가운데 음식류로는 김치, 떡, 전주비빔밥, 고추장, 된장・청국장, 삼계탕, 불고기, 소주・막걸리, 냉면과 함께 짜장면이 10개 항목 안에 포함되었다(김만태 2009: 160).[13] 이러한 상황은 짜장면박물관의 향후 전시 목표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구청이 우선 추진한 것은 이 건물의 등록문화재 지정이었다. 구청은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거쳐 2006년 4월 12일에 공화춘을 구 청국영사관, 전서경 가옥과 함께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데 성공했다.[14] 문화재 등록 후 문화재청은 근대건축물 기록화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 6월부터 12월까지 대학의 건축학과에 용역을 맡겨 공화춘 건물의 기록화사업을 진행하였다.[15] 그런데 기록화사업의 조사결과는 구청이 공화춘에 대

13) 이것은 다른 음식에 비해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자지앙미옌'(炸醬麵)이 한국 음식문화를 상징하는 한국의 '짜장면'으로 토착화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김만태 2009: 160).

14) 공화춘의 문화재 등록사유는 다음과 같다. 공화춘의 전체적인 평면은 '目'자형으로 전후면에 '一'자형의 건물이 있고 그 사이공간을 네 동의 건물에 연결하고 있으며, 각 연결 건축물 사이에는 중정이 구성되어 있다. 상업용도 건물에 중정형의 공간구성을 취한 것 등의 구법은 당시 청국조계지의 건축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중국요리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짜장면을 상용화한 중국요리 전문점으로서 생활사적, 향토사적, 건축적 가치가 있다(문화재청 2006: 63).

15) 이 사업은 역사적 자료와 실측자료를 토대로 해서 ① 중화요리집 '공화춘'의 연혁 및 건축물 '공화춘'의 건립연대 규명, ② 현 공화춘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실측 및 도면 작성, ③ 현 공화춘 건축물의 원형 규명 및 변형범위 파악, ④ 현 공화춘 건축

해 기대했던 방향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즉 공화춘의 건립 시기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목재연륜연대측정 결과 1908년을 전후로 건축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공화춘이 과연 그 시기부터 음식점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정확한 문헌기록이 없어 알 수가 없었다. 공화춘이 중화요리 음식점이었다는 기록은 중화민국 23년(1934년) 7월에 작성된 '인천화상상회회원명적표'를 통해서야 비로소 찾을 수 있다(문화재청 2007: 79; 한동수 2009: 381). 이것은 실제로 짜장면이 처음으로 공화춘에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조사결과로 인해 기록화사업이 종료되던 2007년 12월 27일에 열린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는 과연 공화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짜장면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아래 내용은 당시 간담회의 녹취록(문화재청 2007: 253-255)을 재구성한 것이다.

우선 공화춘 기록화사업의 책임연구원이었던 전문가 1(H대학 건축학과 교수)은 그동안 진행된 연구내용 분석을 통해 공화춘에서 짜장면이 처음 만들어졌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결과를 보고한다.

> 전문가 1: 1905년에 짜장면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6·25전쟁 이후부터 짜장면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그 이전에는 중국식 짜장면을 만들어 먹은 것으로 보인다. 한 곳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주변에서 다들 만들어 먹었다. 따라서 공화춘에서 처음으로 짜장면을 만들어 먹었는지는 확실히 알기 어렵다. 사진과 조사 자료 등을 살펴보면 공화춘은 짜장면보다 요리를 먹었던 곳으로 생각된다.

어린 시절부터 차이나타운 내에서 살았고 현재는 개항장역사문화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는 전문가 2 역시 과거에 공화춘에서는 짜장면보

물의 건축 특성 파악 및 향후 보존계획안 제시를 목표로 시행되었다(문화재청 2007: 32).

다 요리위주의 영업을 했다고 술회한다. 그는 비록 화교에게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박물관에서 화교의 역사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 전문가 2: 어렸을 때부터 이곳에서 살았다. 선린동에 거주한지 30년 정도 되었다. 예전에 옆집 사람이 공화춘에서 결혼 피로연을 했었다. 그때 코스요리를 처음으로 먹어보았다. 짜장면보다는 요리 위주로 영업을 했다. 중국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나도 이곳 주민들과 다 친한 것은 아니다. 이곳 주민들은 중국인이라 해서 대접받지 못하고 살아왔다. 그래서 협조도 힘들고 마음도 쉽게 열어주지 않는다. 화교의 역사 이야기를 다루면 주민의 참여도가 높아질 것 같다.

인천지역의 여러 전문가들 역시 공화춘을 짜장면박물관으로 쓰기보다는 중국인의 역사를 담거나 유물 그 자체로 보존할 것을 건의한다.

> 전문가 3(인천 J대학 교수): 공화춘의 면적은 작지 않다. 꽤 넓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짜장면의 종류는 20가지 정도로 짜장면만 가지고 전시하기에는 공화춘이 너무 넓다. 짜장면은 일부 코너에 한정시키고 중국인들의 역사를 담아내는 박물관을 만들면 중국인들의 참여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처음의 컨셉 때문에 너무 억눌려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 전문가 4(인천 지역문화 연구모임 대표): 공화춘 박물관 계획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공화춘이 회관건축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나름대로 보존을 해야 한다. 박물관을 위한 것이라면 공화춘 말고 다른 곳에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의견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화교 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따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을 끝으로 간담회는 마무리 되었다. 간담회는 형식적인 것이었을 뿐이고 지방정부로서는 짜장면박물관의 설립이라는 가시적인 성과가 더 중요했다고 볼 수 있다.

간담회 이후 구청은 오히려 공화춘 건물을 매입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다. 공화춘 건물 매입은 문화재 지정 이전부터 추진해왔으나 번번이 실패했던 부분이다. 공화춘의 지분이 여럿으로(6명) 나누어져 있는데다가 매입가격에 대한 입장차이가 너무 컸다. 공공기관에서는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 조금 높은 가격이 책정될 수밖에 없었고 소유자들은 현 시세대로 요구했기 때문이다. 결국 중구청에서는 공화춘 소유자가 매각 후에도 1층을 소규모의 짜장면을 판매하는 음식점으로 4년 정도 무상임대를 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했으며 극적으로 타결을 보았다.

그러나 박물관 완공 후 전(前) 소유주들과의 박물관 내 음식점 임대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우선 1층은 전시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음식점을 할 수 있는 견적이 나오기 힘들었고, 박물관에서 조리를 하기 위해 불을 지피는 것은 화재의 위험성이 있었으며, 계약서상에 전소유주들에게 임대 우선권은 줄 수 있지만 임대료는 박물관 측에서 법적으로 수납해야하기 때문에 전소유자들이 박물관 내에서 음식점을 경영할 경우 적자를 볼 수밖에 없었다. 결국 전소유자들은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고 들고 나왔고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 박물관 측은 공화춘을 처음 건립한 소유자들의 할아버지인 위시광(于希光)의 이름을 딴 기념홀을 마련해 주기로 함으로써 전소유주들과의 갈등을 일단락 지었다. 그러나 이 기념홀은 상설전시설이 아니라 기획전시시설로 못 박았기 때문에 박물관 측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다른 전시로 변경할 수 있었다.[16]

2009년에 공화춘의 부지매입이 완전히 완료되면서 그해 6월부터는 건물의 보수 · 보강공사 용역설계가 시작되었다. 건물은 너무나 노후해

16) 박물관 운영 초반 '우희광 기념홀'에는 과거 공화춘을 운영할 때 쓰던 장부와 각종 유물들이 전시되었으나 8개월 후 다른 전시가 기획되면서 그 유물들은 보관소에 다시 들어가 버렸다. 2012년 12월 22일에 박물관에서는 제1회 기념전으로 '짜라짜짜! 추억을 먹다 전(展)"을 열었다. 이 전시회에서는 국내 여러 기업에서 출시된 짜장라면을 시대별로 분류 · 전시하였다.

붕괴위험 E등급을 받을 정도로 박물관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결국 2010년부터 무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보수 · 보강공사를 거쳐 2011년 6월에는 공화춘 건축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었다(인천광역시 중구 2011b: 48). 구청에서는 건물의 내부 전시를 위해 전시 전문업체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10여 명의 박물관 건립자문위원단이 조직되었는데 이때에서야 지역 화교 1명이 자문위원단에 합류하게 되었다.

> 제가 처음에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물론 칼자루는 구청에 들어 있으니까 뭐…그런데 짜장면박물관…타이틀 넣어가지고 과연 이게 큰 히트를 칠 수 있을까…그런 의문점이(들었어요)…짜장면의 역사가 한국에서는 짧은 역사인데…짜장면 하나가지고 타이틀 넣으면 굉장히 단순해요. 내가 생각한 것은 화교역사관을 해가지고 관련자료가 나오면 짜장면 얘기가 나올 거리가 되고…짜장면박물관을 해도…2층 올라가면 (공화춘 사장 집무실이 있는데)…옛날에 공화춘 사장님은 화교협회 회장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업무도 봤죠. 그래서 자료들 집에 있었어요. 협회에서 가져온 걸 갖다가 집에서 업무를 보다가 (협회로) 안가지고 온 몇 가지 자료가 있는데…그걸 내놓아가지고 자연히 화교 역사가 따로 들어가는데…짜장면 하나로만 딱 때리니까 화교역사가 없는 거 아니에요…(K씨, 화교, 1956년생, 인천화교협회 임원, 차이나타운에서 음식점 경영).

K씨는 독립적인 짜장면박물관의 설립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비교적 소상하게 당시 공화춘 사장의 동선(動線)을 설명해내고 있었다. 공화춘에 대한 화교 개인의 또 다른 기억이 제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의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짜장면박물관 담당자들은 자문위원회에 화교가 몇 명이 참석하든 상황은 동일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지역 화교들이 새로 건립되는 짜장면박물관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담당자들도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화교들은 항상 “짜장면을 팔아먹을 수밖에 없는 아픈 역사인데 박물관을 만들어서 상처에 소금 뿌리냐”, “천한 음식인

데, 배달이나 해먹는 천한 것인데 그런 걸 만들어서 아픈 상처를 또 건드리냐"고 말하며 차라리 '화교박물관'으로 만들어달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화교들의 건의에 대한 지방정부쪽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박물관은 화교들을 위해서 세우는 게 아니다. 처음에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짜장면박물관에 접근했던 방식과 의미는 화교들이 요구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 박물관은 현재 한국문화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짜장면이라는 음식의 여담과 우리 문화속의 의미를 찾아보는 것, 즉 한국문화를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해온 주체인 화교가 한편으로는 의미가 있기는 해도 화교들의 아픈 역사를 들여다보는 것하고는 사실상 궤를 달리한다.

둘째, 화교들이 건의한대로 화교박물관을 만들면 좋지만 이는 짜장면박물관과는 별도로 설립해야 한다. 또 따로 설립하더라도 화교들이 발의를 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다. 예컨대 화교들이 주체가 되어 5~6억원 정도를 모아서 유품과 땅을 줄 테니 화교역사 박물관을 지어 달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고려할 수 있다. 왜냐하면 화교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힘을 보태어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부에서 시비나 구비를 투여할 수 있는 명분이 되기 때문이다. 즉 짜장면박물관은 처음부터 한국인과 한국문화를 위한 것이었고 화교를 위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화교들이 박물관에 대해 논할 자격이 없으며 진정으로 화교들이 화교박물관을 설립하고 싶다면 화교공동체가 앞장을 서야 한다는 것이다.[17]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전형적인 주류사회의 논리라고 볼 수 있다. 소수자인 이주자들에게 있어서 거주국에서의 집단행동은 늘 추방의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수자의 입장이 전혀 배려되지 않은 지방정부의 논리 속에

17) 이것은 공화춘 상호를 상표등록하고 프랜차이즈점을 개업한 L씨의 의견과 내용이 같다.

서 결국 공화춘은 건물 소유자와의 갈등, 지역 전문가 및 화교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로 지정된 지 약 6년 만에 짜장면박물관으로 완공을 보게 되었다. 부지매입에서부터 내부 전시시설에 이르기까지 박물관 설립을 위해 투입된 전체 예산은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약 65억 원이었다.

개관한 짜장면박물관을 방문해 보면 화교와 차이나타운과 중국음식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다. 큰 길과 접해 있는 박물관 후면에는 짜장면 조리사가 서양식 위생복을 입고 짜장면 배달통을 들고 음식배달을 가는, 만화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조악한 조형물이 세워져 있다. 짜장면박물관의 내부로 들어가면 리플릿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는 짜장면 박물관이 개항기 인천에서 탄생해 이제는 '한국 100대 민족문화 상징'의 반열에 오른 한국식 짜장면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 건립되었다는 안내문이 인쇄되어 있다.

짜장면박물관의 건물 내부로 들어가면 2층부터 관람하도록 되어 있다. 2층에는 짜장면의 탄생을 다룬 제1전시실에서부터 1930년대 공화춘을 재현한 제2전시실, 1970년대 짜장면의 전성기를 다룬 제3전시실, 현대 한국문화속의 짜장면을 다룬 제4전시실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제4전시실은 짜장면 배달통들과 오토바이를 직접 가져다 놓았으며 관람객이 자전거를 타면서 짜장면 배달을 가상현실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았다. 2층 관람을 마치고 1층으로 내려가면 양쪽으로 1960년대 공화춘 주방에서 짜장면 만드는 작업을 재현해 놓았다. 전체적으로 산둥지방에서 온 중국인들에 의해 자지앙미엔이 유입되어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뿌리내리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한국인 관람객들의 경우에는 많은 흥미를 보인다. 특히 1970년대 졸업식 후 가족들이 짜장면을 먹는 장면을 재현한 곳(〈사진 4-2〉의 오른쪽)에서는 해설사들이 관람객들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질문의 내용은 이 장면에서 졸업식을 한 학생이 여학생인가 남학생인가 하는 것이다.[18] 관람

〈사진 4-2〉 왼쪽 사진은 짜장면박물관의 후문 쪽에 배치된 짜장면 배달통을 든 요리사를 형상화한 조형물 모습이고 오른쪽 사진은 1970년대 졸업식을 마친 한 가족이 짜장면을 먹는 모습을 마네킹으로 재현해놓은 모습이다.

객들은 과거 어린 시절부터 즐겨먹었던 짜장면을 통해 그 당시의 감회에 젖게 된다. 실제로 박물관 관계자들은 개관일 부터 며칠 내에 2,000~3,000명의 대규모 인파가 다녀갔고 각종 언론매체 등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게 된 것을 생각하면 박물관의 기획의도가 적중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 지역 화교들의 시각과 입장은 다르다. 화교들은 짜장면박물관 자체에는 별 이견이 없다. 화교들이 차이나타운 내에서 주로 중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짜장면박물관은 음식점의 매출을 더욱 올려줄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된다. 즉 짜장면박물관은 차이나타운이라는 장소가 아니라면, 화교들이 자랑하고 싶어 하는 화려한 중국요리의 상징인 공화춘 건물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면 별반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문제는 화교들의 집단적 거주지이자 공동체적 장소인 차이나타운 내에, 그것도 중국요리에 대한 자부심이 깃든 건물에 굳이 이 박물관을 세웠느냐 하는 것이다. 화교들은 일본의 라면박물관의 경우 중국에서 전파된 라면을 일본 특유의 것으로 '발명'해낸 자부심이 배어있지만 이 짜장면박물관은 적어도 화교들에게 있어서 전혀 자랑스러운 대상이 아니라고 말한다.

18) 해답은 졸업장을 담는 통의 색깔에 나타나 있다.

3) 짜장면박물관을 둘러싼 역사논쟁

인천 차이나타운이 매스컴을 통해 관광지로 점차 부각됨에 따라 지방정부에서는 각 계절마다 열리는 축제의 예산을 일부 지원하여 차이나타운을 더욱 활성하려고 한다. 특히 차이나타운에서 2002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에서는 짜장면 관련 행사에 대한 예산 지원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2011년에는 아예 짜장면을 독자적인 주제로 선정하여 짜장면축제를 주민단체에게 기획하도록 하여 예산을 배정하려 했다. 그러나 화교와 한국인으로 구성된 단체인 인천차이나타운발전위원회의 일부 임원진(주로 화교)들의 반대로 이 짜장면축제는 무산되고 말았다.

축제의 무산을 둘러싸고 화교와 한국인 주민 간에는 서로 의견이 분분했다. 한국인 주민들뿐만 아니라 화교들조차도 구청에서 지급하려 한 보조금 5,000만 원을 인천차이나타운 발전위원회에서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려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오히려 인차발 회장은 구청의 돈을 그대로 받아 행사를 진행하기 보다는 회원들이 축제를 위한 준비 비용을 더 내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차발 회장은 자신들이 축제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인천 차이나타운 화교들에게 있어 정작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짜장면축제의 바로 그 '짜장면'이었다. 화교들은 차이나타운이 개발되고 조성된 지 벌써 10년이나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차이나타운에 걸맞은 축제를 해야 하는데 자꾸 지방정부에서는 짜장면을 부각한 축제로 차이나타운을 인식시킨다고 말한다. 이것은 당시 공화춘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있던 짜장면박물관에 대한 화교들의 불편한 심기와도 관련이 있었다. 공화춘으로 대표되는 화교가 지닌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보다는 짜장면이라는 음식에 치중한, 그것도 사료가 확실하지 않은 짜장면의 기원을 주제로 박물관을 만드는 것은 화교들에게는 아주 마음이 불편한 일이었다. 짜장면

박물관 건립은 한국 화교사회의 역사와 관련된 대규모의 문화재 복원사업이었지만 정작 화교들은 차이나타운의 상징과 전통을 '짜장면'으로 일원화하려는 일련의 사업들에 대해 커다란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이러한 불만은 공화춘의 짜장면 원조설에 대한 역사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화교들은 이 박물관 건립이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몇 가지 나열한다. 첫째, 공화춘이 1912년에 만들어지고 여기서 짜장면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이다. 즉 음식점으로서의 공화춘은 적어도 1922년 이후에 만들어졌으며 당시 메뉴에 짜장면은 없었다. 공화춘은 규모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당시 대규모 요리집이었으며 짜장면을 주 메뉴로 취급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인 부두 노동자가 짜장면을 먹기 시작했다는 것 역시 억측이라는 것이다. 즉 미군주둔에 의해 밀가루가 보급되기 전인 1950년 이전에는 당시 춘장과 밀을 수입에 의존했고 축산업이 발달하지 않아 고기가 귀한 시절에 하층민인 부두노동자들이 짜장면을 먹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아가 화교들은 짜장면박물관의 건립이 한국인에게도 결코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박물관을 통한 왜곡된 교육은 한국인 후세들에게 잘못된 역사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 오래된 중국집의 보존은 자체가 가치 있어요. 그러나 짜장면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거짓말…후세들에게 책임감이 있어야 하잖아요. 다른 나라 역사를 왜곡한 것은 일단 고사하고…우리 스스로의 역사를 왜곡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략) 언젠가는 이거 터지거든요. 점점 터지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빠릅니까? SNS[19]로 터뜨리면, 그날이면 수습할 수 없어요. 외면당합니다. 나중에 어느 날 거짓말이라는 것 다 알고 무너지는 날…진실 얘기도 들어줄 사람 없어요. 그 전에 수습해야 되요(S씨, 화교, 인차발 임원).

19) Social Networking Service(사회관계망 서비스)의 약자.

그런데 이렇게 공화춘의 짜장면 원조설을 부정하는 것은 곧바로 화교 자신들에게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인천 차이나타운이 일정부분 짜장면의 발상지로 소문이 나고 매스컴을 통해 널리 알려지는 것이 음식점을 주업으로 하는 차이나타운의 화교들에게는 매출에 있어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지역 화교들은 이러한 박물관 건립 움직임에 대해 불만은 있으되 정부에 대해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또 한편으로는 짜장면박물관의 건립으로 인해 차이나타운 내 중식당 운영자들 사이의 갈등이 더욱 첨예해진 부분이 있다. 즉 공화춘이 짜장면의 원조라는 것이 유포된다면 한국인인 L씨가 차이나타운 내에서 동명으로 상표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식당이 이익을 보고 상대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 화교들은 공화춘이 짜장면의 원조가 아니며 공화춘의 상표명을 쓴 현재의 공화춘 프랜차이즈점 역시 가짜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공화춘의 짜장면 원조설을 부정하는 이들 업소 주인들은 한편으로 자신들이 진정으로 짜장면 원조의 맛을 재현했다며 자신들이 생각하는 원조 짜장면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결국 각 업소들이 저마다 짜장면의 원조라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짜장면박물관에 대한 화교사회의 실제적인 불만은 정치적으로 세력화되지 못했다.

화교들이 주장하는 '역사성'에 대응하여 지방정부에서는 이른바 '장소성'을 내세운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사료가 부족하긴 하지만 정황상 인천 개항장 일대, 특히 청국조계 일대에서 짜장면이란 문화가 처음 전파되어 퍼졌던 것은 확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론(異論)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 그 중에서 이곳에 가장 오래된 요리집이 존재하고 있고 등록문화재라는 상징성이 있다는 점이다.

셋째, 현재에도 차이나타운 쪽에 짜장면으로 성업 중인 업소가 부지기수라는 점이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이곳은 짜장면이 처음

들어와서 어떻게 퍼져나갔고 어떻게 한국인의 문화 속에 깊이 스며들어 왔는지 역사적 흐름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차이나타운의 화교들은 자의든 타의든 일단 지방정부의 이러한 정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거주국 주류사회의 완강한 논리를 소수자들이 동등하게 논박하거나 역전시킬 수 없다는 것을 그 이전세대부터 터득해왔기 때문이다. 더구나 화교 중에는 자신들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대변해줄 '가방끈이 긴'(학력이 높은) 지식인들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교들은 자신들의 가슴 한켠에 남아 있는 서글픔은 지울 수가 없다. 화교들은 주류사회의 개발논리에 맞서 대항하기 보다는 그 뒤편에서 짜장면박물관에 대해 울분을 토한다. 적어도 화교들에게 있어서 짜장면은 이주민인 자신들에 대한 거주국의 차별과 배제를 피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길이었다. 또한 이 짜장면박물관은 이른바 '다문화사회'라는 오늘날, 없어진 줄 알았던 자신들에 대한 조소와 놀림의 새로운 버전에 다름 아니다.

> (박물관에) 사실 뭐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짜장면, 자전거에다 배달통에다가…(중략) 철가방…옛날 있잖아요. 옛날…그런 거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중국사람 보고 "짱깨, 짱깨" 그랬듯이 똑같은 거예요. 이거. 뻔한 거 아니야. 약 올리는 거 밖에 더 되냐고(D씨, 화교, 1956년생, 차이나타운 내 음식점 경영)

한편 공화춘은 인천 차이나타운의 화교들에게 있어서 그동안 자랑스럽게 생각해왔던 다양하고 화려한 중국 요리의 근원지였으며 결혼식 등 각종 통과의례 행사의 추억의 장소이기도 하다. 그런 장소가 이제는 각종 배달통과 싸구려 음식으로 꾸며진 한국인들의 추억의 장소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먼 훗날에 롯데호텔을 갖다가 된장찌개 집이라고 깐 거에요. 백반집이라고 깐 거에요. 말은 맞아요. 롯데호텔 가서 지금 된장찌개 백반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돈 들고 가서 "백반 하나줘"(그러냐구요?). 롯데호텔에서 안모실수도 있단 말이죠. 그게 가슴이 아프다 이거에요(H씨, 화교, 1958년생, 차이나타운 내 음식점 경영).

구청에서 내세우는 '장소성'은 한국인의 장소 및 음식에 대한 경험과 정체성을 고려한 것이며 '짜장면'을 통해 과거 치욕스러웠던 개항장의 역사를 미래의 문화적 자원으로 바꾸어놓겠다는 의도가 박물관 전체의 기획 속에 담겨져 있다. 이러한 정부의 민족주의적인 기획으로 인해 정작 이 장소의 실제적인 역사성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화교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자부심이 철저하게 배제되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결국 '짜장면'은 한국인에게 이른바 '현대의 문화 아이콘'[20]이 되었지만 화교들에게 있어서는 고통과 좌절을 더 깊게 심어주는 '비극과 절망의 아이콘'이 되어버렸다. 이 지역 화교들은 종종 "아무리 배고파도 우리 아버지, 조상 팔아서 밥 먹고 싶지 않다"고 말하기도 하고 "차라리 귀화해서 구청장에 도전해보면 어떨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그동안 지방정부건, 지방정부건 맞서서 이겨본 경험이 없는 화교들은 정부의 논리에 저항할 생각보다는 이제껏 해온대로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화교들이 내뱉는 이러한 자포자기적인 표현들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한편으로는 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차이나타운의 개발에 대한 구성과 비전이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20) 짜장면박물관 리플릿에 나온 글귀이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치욕스러운 과거이지만 최초로 문물을 받아들인 곳이라는 양면적 성격을 가진 개항장을 중심으로 지방유산에서 국가유산으로의 도약을 꿈꾸며 관광자원을 개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조계지에서 특권자였으나 오늘날 소수자로 전락한 화교의 사회적 지위가 박물관의 설립과정을 통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인천의 경우 19세기 말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의해 강제 개항한 개항장이라는 치욕적인 성격이 있는 곳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처음으로 근대 문물을 받아들인 선구적 도시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정부가 이러한 양면적 역사를 다시 민족과 민족주의의 형성에 기여하도록 만들기에는 다양한 장치들이 필요했으며 이것은 음식 박물관이라는 형태로 표현되었다. 여기서 이주자 집단의 음식이었던 짜장면은 '최초'이자 거주국 문화에 동화되고 재창조된 음식물로 고안된다. 소수자 문화를 박물관으로 흡수하는 이 과정에는 해당 종족집단의 다문화성 대신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작동하기도 한다. 박물관을 통해 새롭게 해석되고 구성된 짜장면이라는 음식은 한국인에게 있어서 산업화의 고단함과 설움을 잊게 해주는 추억의 음식이자 외래문화를 흡수하여 더 나은 형태의 문화를 창조해 내는 민족적 저력의 표현이 된다. 그러나 정작 이 음식을 전래했다고 전해지는 이주자인 화교들에게 있어서는 이 땅에서 요식업밖에 할 수 없었던 거주국 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설움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음식이기도하다. 이러한 소수자의 항변은 역사논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비록 강력하지는 않지만 화교역사박물관 설립의 열망으로도 나타난다.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표출된 이러한 집단의 경합과정은 주변 열강에 의한 강제 개항이라는 부끄러움과 치욕의 과거를 전복하기 위해 '최초', '문화의 발상지'만을 강조하는 국가

및 지방정부의 관광자원 개발과정 및 방식을 다시 한 번 새롭게 정립해 보자는 이주민 집단의 의견이 거주국의 차별과 배제에 적응하면서 터득한 나름대로의 의사소통 방식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세계경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부문인 관광산업에서, 특히 도시관광 분야에서는 이주민들의 존재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고(Hall & Rath 2007: 4-5) 박물관 등 각종 관광관련시설 건립에 있어서도 그 핵심 주제가 점차 조화로운 다문화성의 강조라는 점에서,[21] 인천 개항장의 문화관광 자원화의 경우와 같이 고유한 에스닉 자원을 희생시키고 개항장의 맥락을 변화시키면서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짜장면박물관을 포함한 관광산업의 방향성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특히 유적과 유물을 둘러싼 다양한 집단의 과거에 대한 견해와 해석을 존중하는 것은 보다 풍부한 관광개발 자원의 발굴이라는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한 사회의 지난 과거를 재현해주는 박물관을 통해 소수자인 이주자 집단의 문화는 과연 어떻게 해석되며 구성되고 있는가? 그것이 집단의 차이를 인정하는 인정의 정치(politics of recognition)[22]에 입각한 조화로운 다문화사회로 안내하는 오솔길로 기능하는지 아니면 반(反)다문화주의적이고 단일한 민족주의적 사고에 입각해있는 편협한 미래의 길로 안내하고 있는지는 오늘날 다문화사회로 진입 중인 한국사회가 끊임없이 되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일 것이다.

---

21) 이와 관련하여 특히 오늘날 넓게 확산되고 있는 '이민박물관의 유행' 현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세계화에 따른 국제이주의 급증과 그것과 관련해 세계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통합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논쟁들은 이민현상에 대한 관심을 촉발했고 이것은 곧 '이민의 박물관화'로 이어졌다(이용일 2012: 69).

22) 다문화주의는 재분배의 정치(politics of redistribution)라기보다는 인정의 정치 혹은 차이의 정치(politics of difference)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Kymlicka 2002: 332-333). 이러한 맥락에서보자면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다문화주의는 결혼이민자 가족보다는 오히려 이주노동자 가족이나 화교, 난민에게 더 적합한 개념일 수 있다(김정선 2011: 224).

논문접수일: 2013년 4월 15일, 논문심사일: 2013년 5월 24일, 게재확정일: 2013년 6월 13일

참고문헌

김광억
1994 “음식의 생산과 문화의 소비: 총론”, 『한국문화인류학』 26: 7-50.

김만태
2009 “‘짜장면’의 토착화 요인과 문화적 의미”, 『한국민속학』 50: 159-207.

김정선
2011 “시민권 없는 복지정책으로서 “한국식”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경제와사회』 92: 205-246.

김현철
1999 『신동엽의 신장개업 대작전』, 서울: 무한.

박소현
2011, “신박물관학 이후, 박물관과 사회의 관계론”, 『현대미술논집』 29: 211-237.

박은경
2002 “한국인과 비한국인: 단일 혈통의 신화가 남긴 차별의 논리”, 『당대비평』 19: 272-287.

박현옥・박정동
2003 『한국화교(인천화교)의 경제활동 및 사회적 지위에 대한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손정목
1982 『韓國 開港期 都市變化過程硏究: 開港場・開市場・租界・居留地』, 서울: 일지사.

양필승 · 이정희
2004 『차이나타운 없는 나라: 한국화교 경제의 어제와 오늘』,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이덕훈
2002 『화교경제의 생성과 발전』(개정증보판), 한남대학교 출판부.

李玉蓮
2005 "近代 韓國華僑社會의 形成과 展開", 인하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이용일
2012 "트랜스내셔널 공간으로서 이민박물관(Migration Museum)", 『서양사론』 112: 68-96.

이창호
2007 "한국 화교(華僑)의 사회적 공간과 장소: 인천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류학전공 박사학위논문.
2012 "한국화교의 '귀환'이주와 새로운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45(3): 153-198.

이효재 · 박은경
1981 "한국 화교 및 화교의 이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한국문화연구논총』 37: 211-253.

장수현
2001 "한국 화교의 사회적 위상과 문화적 정체성", 『국제인권법』 4: 1-30.
2002 "한화(韓華), 그 배제의 역사", 『당대비평』 19: 245-258.

秦裕光
1979. 10. 25. "華僑(32)-中華樓", 『중앙일보』.

최영준
1974 "開港 前後의 仁川의 自然 및 人文景觀", 『지리학』 10: 43-59.

한동수
2009 "인천 청국조계지 내 공화춘의 역사변천에 관한 연구", 『중국학보』 60: 371-393.

Anderson, Benedict
1991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 New York: Verso.

Appadurai, Arjun
2001(1996) "Disjuncture and Difference in the Global Cultural Economy", *Modernity at Large: Cultural Dimensions of Globalization*, Jonathan Xavier Inda & Renato Rosaldo (eds.), *The Anthropology of Globalization*, Oxford & Malden: Blackwell Publishing, pp. 46-64(차원현 · 채호석 · 배개화 역, 2004, 『고삐 풀린 현대성』, 서울: 현실문화연구).

Bennett, Tony
1995 *The Birth of the Museum: History, Theory, Politic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Hall, C. Michael and Jan Rath
2007 "Tourism, Migration and Place Advantage in the Global Cultural Economy", in Jan Rath (ed.), *Tourism, Ethnic Diversity and the City*,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pp.1-24.

Hobsbawm, Eric
1992(1983) "Introduction: Inventing Traditions", Eric Hobsbawm and Terence Ranger (eds.),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1-14 (박지향 · 장문석 역, 2004, 『만들어진 전통』, 서울: 휴머니스트).

Jones, Siân
1997 *The Archaeology of Ethnicity: Constructing Identities in the Past and Present*, London & New York: Routledge (이준정 · 한건수 역, 2008, 『민족주의와 고고학: 과거와 현재의 정체성 만들기』, 서울: 사회평론).

Kohl, Philip L
1998 "Nationalism and Archeology: On the Constructions of the Remote Past",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27: 223-246.

Kymlicka, Will
2002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장동진 · 장휘 · 우정열 · 백성욱 역, 2006,『현대 정치철학의 이해』, 파주: 동명사).

Mintz, Sidney W. and Christine M. Du Bois
2002 "The Anthropology of Food and Eating",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31: 99-119.

Shackel, Paul A.
2004 "Working with Communities: Heritage Development and Applied Archeology", Paul A. Shackel & Erve J. Chambers (eds.), *Places in Mind: Public Archeology as Applied Anthropology*, New York & London: Routledge, pp.1-16.

Stone, Peter G and Philippe G. Planel
1999 "Introduction", Peter G. Stone & Philippe G. Planel (eds.), *The Contested Past: Experimental Archaeology*, Education and the Public, London & New York: Routledge, pp.1-14.

<자료>

居善堂文化會月刊
2006. 9. 5(第六期), "韓華百年老餐館共和春原址: 將被登記近代文化遺産".

경인방송(i-TV)
2004. 10. 11, "다큐멘터리-제물포의 유산"(임소연 연출).

문화재청
2006,『2006년도 등록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2007,『인천 선린동 공화춘: 기록화 조사 보고서』.

인천광역시
1998,『仁川의 地名由來』.
2002,『인천광역시사』.

인천광역시 중구
2011a,『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계획』

____b,『자장면 박물관(舊 공화춘) 보수・보강 공사 수리 보고서』.
____c,『제23회 중구통계연보』.

인천광역시 중구 기획감사실
2012,『2012 인천광역시 중구 구정백서』.

인천일보
2003. 1. 22일자, “차이나타운”.

<인터넷>

공화춘 홈페이지 http://www.gonghwachun.co.kr/

〈Key concepts〉: museum, ethnic food, *Jjajangmeon* (black bean noodles), *Gonghwachun* (共和春), Chinatown, overseas Chinese, nationalism, tourism industry

New Interpretation and Construction of the Ethnic Food through Museum:

A Case Study of the *Jjajangmeon* Museum in Incheon

Lee, Chang-Ho*

The opening ceremony of the *Jjajangmeon* (black bean noodles) museum where *Gonghwachun* (共和春) was built in the Incheon Chinatown was held in April 2012. *Gonghwachun,* a Chinese restaurant, was built by overseas Chinese who emigrated from China in the late 19th century, but went out of business in the early 1980s.

Interestingly, a discourse that *Gonghwachun* is the birthplace of the *Jjajangmeon,* in other words, the original dining room where *Jjajangmeon* was served first began circulating without any archaeological evidence after the normaliz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n 1992. At the same time the Chinatown in Incheon emerged as a center of the tourism industry.

Despite opposition from overseas Chinese in the region, local and national governments constructed the *Jjajangmeon* museum after designating *Gonghwachun* as a registered cultural asset and

* Lecturer, Hyupsung University

purchasing the land. In this way, the *Jjajangmeon* museum became the subject of debates in the interpretation and construction of it among a variety of agents such as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archaeologists, and overseas Chinese.

In this paper, I describe not only a variety of environments but also contexts of inter-group tensions and contestations and how the needs of the tourists as the actual consumer play out in detail through ethnography.

In conclusion, I suggest that th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migrant communities should be emphasized rather than nationalism in promoting tourism and educational resources such as ethnic food culture and museum more effectively.